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보도

2018. 10. 4(목) 17:00부터

배포

2018. 10. 2(화)

책임자

동향분석실
전용식 실장(3775-9035)

작성자

전용식 연구위원(3775-9035)

홍보담당

최원 선임연구원(3775-9057) 총 10매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및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표

성장성, 수익성 악화 추세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0월 4일(목) 오후 5시 조선히텔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보험연구원 전용식 동향분석실 실장은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표함.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는 2019년 전망과 과제, 그리고 중장기 전망 결과와 중장기 과제로 구성됨

2019년 보험료는 2018년에 비해 0.80% 감소 생명보험은 3.8% 감소, 손해보험은 2.7% 증가할 전망

- 보험연구원은 2019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가 2018년에 비해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2018년(-1.2%)에 비하면 감소폭은 줄어든 것이나 3년 연속 보험료 감소가 전망된 경우는 처음임
- 생명보험은 감소세가 2017년(-4.9%)부터 지속되고 있고 손해보험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 4.5% 감소, 2019년에도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3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9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7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장세 둔화의 공통적인 원인은 저축성보험의 감소임

-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은 2019년 17.4%, 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은 2019년 2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의 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최저보증이율 하락, IFRS17 등 회계제도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임

□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저축성보험(1.6%), 보장성보험(1.6%), 퇴직연금(3.1%)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 감소와 해약 증가로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의 해약은 저축성보험뿐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부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상해·질병(6.0%), 운전자·재물·통합보험(2.6%) 등의 보장성 부문과 자동차보험(0.5%), 일반손해보험(8.4%)의 증가세로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까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에 비해 연평균 1.7% 감소,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8년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

-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로 2022년까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에 비해 연평균 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OECD 주요국의 과거 2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여명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과 금리 하락, 금융산업 규모 감소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은행, 보험, 증권업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수입보험료는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법인세차감전이익은 2017년에 비해 생명보험은 57%(6.0조 원에서 3.4조 원), 손해보험은 75%(5.7조 원에서 4.3조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추세적인 규모 감소와 수익성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공적보장제도 변화, 소비자 신뢰 등의 추세 극복 요인을 활용할 필요

- 보험연구원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입보험료 감소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로 (1) 수익성 관리, (2) 보유계약 관리, (3) 공적보장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제시하였음
 - (1) 수익성 관리: 수익성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관리, 효율적 자산배분 강화, 장수위험 관리가 필요함. 비용관리는 일회성 구조조정이 아닌 비용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지향해야 하며, 자산운용에서도 수익률뿐 아니라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1년 도입 예정인 장수위험은 생명보험회

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장수위험 관리를 통해 요구자본 부담 경감, 자본효율화를 모색해야 함

- **(2) 보유계약 관리:** 보장성보험의 해약 증가로 확대된 최근의 해약 증가는 부채구조를 변화시켜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해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계약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억제, 고아계약 관리 등이 필수적이고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에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보유계약 관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신뢰 제고가 중요함
- **(3) 공적보장 확대에 대한 대응:** 2019년 정부의 예산 편성안에 반영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공적보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리고 인구고령화로 공적보장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공적보장 확대는 사적보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강화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대에 부합하는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저소득층 보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함

□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중장기 과제로 4차 산업혁명, 공적보장제도 변화 등의 추세 극복 요인을 활용한 **(1) 성장성 및 (2) 수익성 제고**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3) 소비자 신뢰 제고**를 선정함

- **(1) 성장성 제고:** 성장성 제고를 위해서는 ① 보험의 역할 확대, ② 해외사업 확대, ③ 공적영역 보완이 필요함
 - ① **보험의 역할 확대:** IT 기술 접목 확산은 보험의 역할을 사이버 보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그리고 선제적 위험관리로 확대시키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보험이 보장하던 위험이 사이버 위험,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확대되었고 보험사업의 범위도 단순한 손실보상에서 손실 예방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그리고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는 보험회사의 보장영역을 헬스케어, 장기요양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일본의 스미토모, 다이이치 생명 등은 헬스케어 제공업체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사례임. 기술,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 필요함

- ② **해외사업 확대:** 보험의 영역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해야 함. 해외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베트남 생명보험 시장점유율이 10%인 일본 다이이치 생명의 해외사업 이익은 2016년 기준으로 그룹이익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③ **공적영역 보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을 극복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공적보장 관련 비용을 줄였고, 이 과정에서 초래된 공적보장의 축소를 보험이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수요를 창출, 성장성을 제고함. 특히 건강보험 축소에 대해 민영 보험회사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개발을 통해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확대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공적보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보장 확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2) **수익성 제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① **비용관리**, ② **보험금 누수 억제**, ③ **ALM 강화**가 필요함

- ① **비용관리:** 유럽 보험회사들은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비용관리를 통해 극복함. 최근 유럽 주요 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 내외이고 우리나라의 자기자본이익률이 2017년 7.7%임을 고려하면 비용관리를 통한 수익성 제고 여지가 있음. 한편, 유럽 보험회사들이 비용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높은 경쟁도, 보험료 결정과 위험인수 관련 자율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보험금 누수 억제:**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 억제는 비용관리뿐 아니라 산업의 효율화에도 관련이 있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강화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 자동차 보험료 하락과 산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달성함.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소비자 보호와 상충될 수 있지만 스페인은 공신력을 갖춘 인신상해 손해사정인의 객관적인 평가와 보험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이슈는 크지 않음. 객관적인 상해 평가와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험금 누수 억제에 필수적임

- ③ **ALM 강화:** 영국, 스페인 등은 자산부채관리를 엄격히 규제하여 시장위험으로 인한 자본비용을 관리, 비용효율성을 제고함. ALM 관련 규제는 영업행위 자율성은 보장하고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감독철학에서 비롯된 것임.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산부채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 (3) **소비자 신뢰 제고:** 네덜란드 생명보험의 2015년 수입보험료는 2008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함.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감소, 은행의 장기저축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수입보험료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자 신뢰 저하를 꼽았음. 2000년대 후반 변액보험 수수료 소송으로 소비자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보험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임. 네덜란드의 사례는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시사함

※ 첨부: 『2019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및 2019년 보험산업 종
목별 전망 각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2019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1. 개관

- 보험연구원은 수입·원수보험료 성장률이 2018년 -1.2%, 2019년 -0.8%로 2017년(-1.0%)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 4.5% 감소에 이어 2019년에도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0%,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6년 5.3% 증가한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감소는 단기적으로 제도변화에 따른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에 따른 것이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의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요인도 상존함
 - IFRS17 등 회계제도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급감하고 있음
 - 한편 보험의 주 수요층인 30~40대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임

2. 생명보험

-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의 성장이 예상되나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지속, 보장성보험의 성장 둔화로 2018년 4.5% 감소에 이어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보장성보험(종신·CI·암·질병·상해 등)은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에도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과 경기 부진으로 인한 해지(해약) 증가로 2018년 2.1%에서 2019년 1.6%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에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해지율 추이와 보장성보험 수수료 인하 압력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저축성보험(생존·생사혼합·변액유니버설·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10.6% 감소할 전망이다
 - 일반저축성보험은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수수료 인하 등의 요인이 지속되면서 2018년 17.8%에 이어 2019년에도 17.4% 감소할 전망이다
 - 2019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예상되나 경기부진에 따른 높은 해지율로 인해 1.6%의 제한적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17.8%)과 변액저축성보험의 소폭 감소(-0.2%)로 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IRP 가입대상 확대,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승 등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3. 손해보험

-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과 특종보험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 보장성보험(상해·질병보험 등)과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등의 부진으로 2018년 대비 0.3%p 하락한 2.7%로 전망함
- 2019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8년 2.2%에 비해 0.3%p 하락한 1.9%로 전망함
 - 보장성보험인 장기손해 상해·질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불확실성(공급 및 수요)으로 2018년 8.5%, 2019년 6.0%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장기손해 저축성보험의 경우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 수요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강화, 낮은 최저보
증이율, 자본부담 확대 등으로 2019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감소세(-28.6%)가
예상됨

- 한편 장기손해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등 기타 장기손해보험은 상품성이 개선되면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통합형보험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019년에도 2018년과 유
사한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2018년에 비해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노후소득에 대한 고객니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 축소와 저금리로 인한
상품성 약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임

○ 2019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가입대상 확대와 베이비부머 은퇴, 임금상승, DB형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비율 상승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저축은행 퇴직연금
판매 허용,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자본부담 등으로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건보 확대 적용, 이상기온(폭염,
한파) 등의 보험료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운행거리 감소, 첨단안전장치 장착,
마일리지보험 대상 및 할인율 확대 등의 인하여인으로 2018년보다 0.3%p 증가한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저성장 및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금리
대출보험과 전세금보장보험 등의 보증보험과 사이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특종보험 성장세로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9년 보험산업 종목별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6		2017		2018(E)		201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보장성 ¹⁾	402,894	6.6	417,592	3.6	426,457	2.1	433,286	1.6
	저축성 ²⁾	620,348	-4.5	565,430	-8.9	495,991	-12.3	443,175	-10.6
	퇴직연금	167,252	22.1	149,064	-10.9	158,932	6.6	163,863	3.1
	기타 ³⁾	7,619	-1.5	7,649	0.4	7,589	0.7	7,530	-0.8
	합 계	1,198,112	2.2	1,139,735	-4.9	1,088,970	-4.5	1,047,854	-3.8
손해보험 ⁶⁾	장기손보	477,727	2.6	490,880	2.8	501,784	2.2	511,561	1.9
	상해·질병	271,537	11.7	296,606	9.2	321,818	8.5	341,127	6.0
	저축성	82,488	-21.2	63,263	-23.3	45,549	-28.0	32,522	-28.6
	기타 ⁴⁾	123,703	4.8	131,011	5.9	134,417	2.6	137,912	2.6
	연금부문	118,160	13.7	134,764	14.1	142,763	5.9	149,067	4.4
	개인연금	38,768	-3.6	37,007	-4.5	35,231	-4.8	33,469	-5.0
	퇴직연금	79,392	24.7	97,757	23.1	107,533	10.0	115,598	7.5
	자동차	164,053	9.4	168,578	2.8	168,915	0.2	169,760	0.5
	일반손보	85,032	2.6	89,116	4.8	96,474	8.3	104,549	8.4
	화재	3,011	-1.0	2,965	-1.5	2,929	-1.2	2,912	-0.6
	해상	6,080	-14.3	6,437	5.9	6,482	0.7	6,547	1.0
	보증	15,909	0.6	17,435	9.6	19,179	10.0	21,096	10.0
	특종 ⁵⁾	60,032	5.4	62,279	3.7	67,884	9.0	73,994	9.0
	합 계	844,972	5.3	883,338	4.5	909,937	3.0	934,936	2.7
	전 체	2,043,084	3.5	2,023,073	-1.0	1,998,907	-1.2	1,982,790	-0.8

- 주: 1) 보장성에는 종신보험, 질병보험, 변액종신 등이 포함됨
 2) 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이 포함됨
 3)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
 4) 기타에는 재물,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이 포함됨
 6)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